

건강 칼럼

갈수록 증가하는 충동조절장애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동조절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6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은 결과에 대한 속고함이 없이 내부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해 무계획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충동적인 행위는 지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충동조절장애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준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에는 병적 도박, 병적 방화, 병적 도벽, 밤모 광증,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인터넷 게임장애, 반복 저해, 지속행동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폭식장애, 강박적 구매(쇼핑 중독), 강박적 성 행동, 강박적 부부 풍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충동조절장애는 다음과 같은 핵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충동 행동을 반복 한다. 둘째, 충동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어 있다. 셋째, 충동 행동을 보이기 전에 강렬한 충동이나 긴장을 보인다. 넷째, 충동 행동을 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충동조절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등 생화학적 원인과 뇌 영역에서의 이상, 정서적 조절의 문제나 성격 특성, 그리고 기타 조증과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의원장
최영특

고 체질적 특성 등 심리학적인 요소 등이 복합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충동조절장애의 모델

앞서 밀혔듯이 충동조절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 없다. 또한 충동조절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박적 성향, 물질 중독, 강정조절의 문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증후군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밀하는 강박적 성향은 병적 도박이나 병적 도벽, 밤모 광증, 강박적 구매, 폭식장애, 병적 부부 풍기, 강박적 성 행동, 인터넷 중독 등에서 종종 발견된다. 충동조절장애에는 반복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강박적 특성은 조절되지 않는 충동에 반응하여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점과, 충동조절장애처럼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

기분장애 모델이, 그리고 충동성과 관련하여 주의력결핍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충동조절장애의 치료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약물로는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병 약물, 기분안정 약물, 이런 길 향체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적 치료로는 충동성과 억제에 대한 인지 행동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치료 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아직 효과적인 단련치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질 중독은 충동조절장애와 행동으로 옮기기 전 갈등상태,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역사 조사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담배 및 알코올 중독,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동조절장애의 치료에 기초의 개입은 필수적이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들은 질병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충동조절 실태를 조망하는 행위의 충동과 치료에 순응하도록 역할을 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동조절장애가 원치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정확한 해답은 없지만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설

휴가철 관광사업 아래서는 곤란하다

휴가철 관광사업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북도는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신경써야 할 곳에 신경을 써야한다. 지금 대로 관광객 숫자에만 마음을 써가지고는 관광사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 지난번에 문광부가 국민 여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북 관광의 당국은 진단을 잘 내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부문에 힘을 쏟아야겠다. 국내 여행 방문 목적지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접수가 나오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새로운 관광홍보 전략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불법영업 같은 기초적인 것과 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으나 갈 길이 멀구나싶다. 개인 여행자로는 마음에 들어도 재방문 지역으로나 추천 지역으로는 접수를 못 받고 있다면 나중에 그 관광 수익은 보이거나 뺄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 관광 당국자들은 긴장해야 한다.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이고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도 유치하려면 변해야 한다. 관광사업의 일신은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전북도는 휴가철 관광 진전화를 위해서 단속 행보도 병행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스마트 농생명 산업 반드시 성공해야

전북도의 농생명 요청되는 때이다. 지역 총소득이 여전히 전국 유통에 수준이 때문이다. 그것도 20년 가깝게 풀제이나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이라는 요구와 함께 지역 경제의 약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쑥이쳐 나오고 있는 것은 그 터서일 테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를 보아야겠다. 한반도 중에는 구체적인 직업이 없이 세월만 빼앗겼던 것들이 적지 않다.

전북도는 농촌 의지를 나둬야 한다. 노인의 요구를 현안으로 끌어들여 반드시 성취시키고자 일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게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혜안이고 추진하며 논이 있어서 한다. 지금 지역 빌판 사업의 맨 앞선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라는 보상을 보자면 답답하다. 그리고 도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는 구역이 있어서 하는 데 그게 별로라서 재미가 없다. 본보는 여기 빙대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도민의 판단과 생활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도자는 이번에 “전북의 미래 머거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 다시 강조해 당부한다.

독자제언

여름철 스마트폰 물카범, 스스로 예방하자

여름철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하는 물카범이 증가하면서 피서지에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 된 스마트폰과 소리 없이 사진 촬영하는 물카범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더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물카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인터넷에 유통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피서지에 위치한 화장실,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특히 주변의 반짝임이 있다면 의심하여야 한다.

둘째, 혼자 다닐 때에는 이어폰을 끊고 걸어가는 것을 피해야한다.

셋째,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거나 셀카를 찍는 휴대폰을 만드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넷째, 물카 피해자는 대부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기에 주변에서 인지한다면 적극적인 112신고로 경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물카 등 성범죄는 현행법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도 물카범과 달리를 풀릴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진 삭제하면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증거수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카범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을을 인식해야하며 상대방을 물리 촬영하여 배포하는 경우 “현 이하의 장면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명심하며 경찰과 시민이 활동하여 나가족, 친구,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가져 안전한 휴양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이정훈부인경찰서 서림지구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텍사스주의 독립기념일 행진



최근 미국 텍사스주의 리운드 루에서 독립기념일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생수 등 준비물을 차에 실고 있다. 이날 폭염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행진과 공연 등 축하행사가 이어졌고 밤에는 전통적 불꽃놀이 축제가 열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